

# 기혼 취업 여성이 지각하는 가정·직업 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 Work/Family Conflict, Physical/Psychological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of Employed Homemakers in Dual-Earner Families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李 蓮 淑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istant Prof. : Yon Suk Lee*

계명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柳 架 孝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Kei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 : Ga Hyo Voo*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李 順 炯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The National University of Seoul  
Assistant Prof. : Soon Hyung Yi*

한국교원대학교 제3대학 가정교육학과  
趙 在 順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istant Prof. : Jae Soon Cho*

###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3. 분석방법       |
| II.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 4. 변수정의와 측정방법 |
| 1. 선행 연구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2. 연구문제 및 연구모델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1. 결 론        |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2. 제 언        |
| 2. 연구도구 구성 및 측정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ork/family conflicts and its relationships with antecedent and outcome variables. 421 employed homemakers living in Seoul, Kyunggi-

\* 본 연구는 1990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연구비 지원에 따른 연구공모과제로써 1991년 6월 22일 제14차 한국가정관리학회 총회 때 발표한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논문 중 연구모형의 검증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do, Chungju, and Daegu provided data using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work/family conflict was weakly correlated with demographic and managerial antecedents (age of respondents and standards for household task performance) but strongly correlated with work setting characteristics, physical/psychological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 research model received considerable empirical support. This presumed that work/family conflict leads to negative outcomes, and was caused by the stress resulting from work setting and non-work conditions.

## I. 문제의 제기

농경사회였던 우리 사회가 지난 3, 40년 동안에 급격히 산업화, 공업화 되면서 가족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점차 확산되는 산업화의 영향은 여성의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었으므로, 여성 취업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기에는 미혼여성이 취업여성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기술이 축적되고 정서적 안정감과 직업의식이 보다 뚜렷한 기혼 여성 인력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미혼여성보다 앞서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경제 활동 통계연보'를 보면, 1987년의 여성취업자는 6,613,000명으로 전체 취업 인구의 40.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86년보다 7.2% 증가한 것이다. 또한 취업여성 중 기혼여성은 1987년 현재 62.2%를 차지해서 전국적으로 4,110,000명의 기혼여성이 취업하고 있다(박숙자, 1990).

이상과 같은 기혼 여성의 증가는 교육비 및 생활비 증가, 노후 대책등의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주부의 자아 실현 욕구에 의해서 발생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87). 기혼 취업 여성은 취업을 통해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가사노동과 직장에서의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서 오는 이중역할로 인하여 피로감이 쌓이고, 스스로가 두가지 역할에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무력감을 느낀다. 또한 취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자녀관리 문제이다. 이영·문수재·지혜련(1986)에 따르면, 전문직 여성의 70%가 자녀 교육과 식사관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생산직 여성들도 아동보육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하고(정민자, 위

미혜, 1990), 위미혜(1988)는 생산직 취업모는 자녀를 방치해 두는 비율이 60%에 이르고 있다고 추산한다.

이와 같이 취업모 가정은 본인의 이중역할 수행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 신체적 피로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 보호와 양육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취업모 가정(맞벌이 가정)의 문제를 더이상 취업모 가정의 개별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생산직 취업모의 아동들이 집이나 거리에 방치되고 있어서 아동문제와 청소년 문제 유발의 가능성이 있으며, 취업모의 이중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가 곧 가족관계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복지를 목적으로 일하는 가정학자들이 취업모 가정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 부인의 가정 및 직업 역할 수행의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갈등 및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통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 II. 선행 연구 및 연구 문제

### 1. 선행연구

전일제로 취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인, 양친, 배우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각 역할은 이러한 역할을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 에너지,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가 양립될 수 없을 때, 갈등을 겪는다고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 왔다(Herman & Gyllstrom, 1977; Keith & Schafer, 1980; Pleck, Staines, & Lang, 1980; Voydanoff & Kelly, 1984;

Kelly, 1984 ; Kelly & Voydanoff, 1985). Voydanoff와 Kelly(1984)는 맞벌이 부부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갈등 유형은 경제적 부적합성과 시간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시간 부족은 Greenhaus와 Beutell(1985)의 문헌 연구에서도 직업/가정 갈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시간부족 갈등과 더불어 스트레스에 기초한 갈등과 행동상의 갈등도 직업/가정 갈등에 포함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다른 역할의 수행에 영향을 줄 때 스트레스에 의한 갈등이 발생한다. 시간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의 여러 원인은 스트레스에 의한 갈등을 유발한다. 행동상의 갈등은 한 역할에서 요구되는 특정행동이 다른 역할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충족시키기 힘들 때 생긴다.

Pleck, Staines와 Lang(1980)의 연구에서는 직업/가정 갈등과 가장관계가 깊은 직장 생활 변수로서 총 작업시간, 초과 근무 시간의 빈도, 퇴근 직전의 업무부과, 그리고 업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요구 수준등이 밝혀졌다. Keith와 Schafer(1980)는 주당 근무 시간,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초과 근무 시간의 양, 스케줄 상의 갈등, 그리고 피로가 직업/가정 갈등을 설명해 주는 직장관련 변수라고 보고하고 있다(Voydanoff & Kelly, 1984 ; Kelly & Voydanoff, 1985). 또한 Greenhaus와 Beutell(1985)은 출퇴근 소요시간과 융통성 없는 업무 스케줄과 같은 직장 관련 변수가 시간에 근거한 직업/가정 생활의 갈등을 설명해주는 변수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간과 관련된 변수와 더불어 다른 직장 관련 변수들 즉 직장 역할내, 역할 사이의 모호성, 직장 상사 관계가 불편하고 지원이 부족 등과 같은 부적응, 작업환경의 변화빈도, 작업에 요구되는 정신 집중도, 의사 소통 상의 스트레스 등이 스트레스 관련 갈등과 정적으로 관련 된다고 하였다(Greenhaus & Beutell, 1985).

여성에게는 이중 취업으로 인한 과도한 노동이 부여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 피로가 쌓인다.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볼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자녀를 생각할 때

마다, 취업 여성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기혼 여성이 취업을 포기한 이유 중에 자녀양육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어느 시기 보다도 어린 자녀를 양육할 시기인 25세 부터 29세 여성의 취업율이 낮다는 것(한국여성개발원, 1986, p : 20)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첫 자녀의 연령과 같은 자녀 변수가 취업여성의 갈등과 가정/직장 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서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선행연구(Voydanoff & Kelly, 1984 ; Kelly & Voydanoff, 1985)에서도 가정 생활과 관련된 직업/가정 생활 갈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녀의 성별, 어린 자녀 유무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인의 취업은 부부간의 역할분담, 의사결정 유형, 의사소통 및 부부관계, 가사노동 관리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남편에 대한 서어비스, 가사역할, 자녀돌보기 등에서 소홀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부부 갈등을 초래하지만 한편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는 쪽으로도 작용한다(김순옥, 1972). 즉, 남편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며 가계에 도움이 되고 직장생활을 통해 가정의 불만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맞벌이 가족의 남편은 가사처리 양식, 태도에서 더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보이고, 부부간 동반 동료의식이 강해서 갈등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의논, 타협하는 정도가 강하다(이성해, 1980). 비취업주부의 남편에 비해 취업주부의 남편은 보다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가사참여에도 호의적이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한다(이정련, 1982, 1983 ; 최규련, 1984 ; 이형실, 옥선화, 1985). 따라서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은 남편의 지지가 있을 때, 감소된다고 보고 된다(임정빈, 정혜정, 1986). 취업주부의 결혼적응 및 결혼 만족도 또한 남편이 부인 취업에 지지하고 협조적인 경우에 높고(서동인, 1985 ; 도미향, 최외선, 1990), 부인의 역할긴장 수준이 낮을 때 결혼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서동인, 1985). 그 밖에 부인의 취업동기 및 직종,

남편의 학력, 수입, 직종 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송말희, 이정우, 1986; 임정빈, 정혜정, 1986; 서동인, 1985; 도미향, 최외선, 1990).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가사분담실태를 살펴보면 취업에 소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주부가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있었으나(Sanik, 1981; Stafford, 1983; Shran & Hafstrom, 1986) 가족의 규모가 크거나 재정적 자원이 적절하지 못할 때는 가사노동 시간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ran & Hafstrom, 1986). Schultz와 2인(1989)의 대학교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응답자의 반수 이상이(51.7%) 가족원이나 가사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구혜령(1990)의 연구는 전문직 취업주부 응답자의 57.8%가 가사조력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38.9%의 주부가 가족원에게 가사분담을 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혹은 상품 및 서비스대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시장의 상품이나 용역의 이용수준은 주부의 직업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직 직업을 가진 주부가 비전문직 직업을 가진 주부보다 상품대체 수준(이기영, 1987)이 높고 편의품의 이용이 높았다. 취업주부의 가정기기의 사용 정도를 분석한 이승미(1989)의 연구를 보면 고소득 전문직 주부가 저소득 비전문직 주부에 비하여 가정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은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관리 방안과 관련된 연구 내용중 가사노동 수행 표준 조정에 관한 분석을 들 수 있겠다. 미국의 주립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이연숙(1988)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가사노동이나 가족생활에 대한 표준을 조정하는 전략은 여러 전략중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전략은 여자교수일수록, 시간 갈등을 많이 느끼는 교수일수록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ultz와 2인(1989)의 대학 교수의 가정/직장생활 이중 역할 문제를 인터뷰한 연구에서도 청결에 대한 표준을 낮추는 방안이 정

해진 스케줄을 엄격하게 따르는 전략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문직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구혜령(1990)의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이 표준 낮추기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건데 취업주부의 역할 갈등 및 결혼만족도에는 무엇보다 부인의 직종, 남편의 학력, 수입, 직업으로 구성되는 사회계층 및 부인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원 정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족의 크기, 가족내 가족원과의 갈등, 배우자로부터 지원 부족은 시간 관련 갈등이나, 스트레스 관련 갈등과도 정적으로 관련된다고 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Voydanoff와 Kelly(1984) 연구에 의하면, 직업/가정 생활 갈등을 일으키는 가정생활 변수는 이혼, 사망, 재혼 등과 같은 가족생활의 변화를 자주 겪는 것과 남편의 직업 지위보다 부인의 직업 지위가 높은 경우라고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가 실직자인 경우와 편부모가 된 경우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직업/가정 생활 갈등을 겪는다고 하였다. Felstehausen, Glossoon과 Couch(1986)는 가사역할 수행과 관리의 곤란, 좋은 타아 시설을 찾기 어려움, 시간 및 에너지 관리상의 곤란이 취업 여성의 직업/가정 생활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가정 생활 갈등은 업무 수행 혹은 업무 참여(Schultz & Henderson, 1985)와 직업 만족도(Cooke & Rousseau, 1984; Pleck, Staines, & Lang, 1980; Burke, 1989) 그리고 가정생활(Kopelman, Greenhaus, & Connolly, 1983; Skinner, 1980)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Voydanoff(1989)는 직업/가정생활 갈등이 전문직과 관리자 직종을 가진 남성들의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직업 전향 의도와, 업무 소홀을 유발하고, 정서적 및 심리적 복지나 신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Burke는 주장 하였다. Abdel-Halim(1982)도 이러한 갈등은 내재적 직업만족도에는 부정적으로, 직업 불안감에

는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Farmer(1984)는 높은 수준의 직업/가정 생활 갈등은 직업 성취 동기의 약화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보듯이 가정 및 직장 생활의 갈등은 직장에서의 여러 특성(주당 근무 총 시간, 초과시간, 출퇴근 소요시간, 퇴근 직전의 업무 부과, 업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요구 수준, 직장에서의 인간 관계등)과 가정생활의 여러 특성(가족의 크기, 어린자녀의 유무, 결혼 상태, 배우자의 지원 유무 및 관계등)과 더불어 사회적 지원 체계(탁아시설의 유무)와 관련 되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직장 생활에서의 업무 수행, 직업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및 여러가지 심리적 정서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연구 문제 및 연구 문형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맞벌이 가정 부인이 가정/직업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갈등 수준 및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도시 맞벌이 가족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배경 변수와 부인의 직장 생활 변수가 가정 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 문제의 분석을 위한 인과 모형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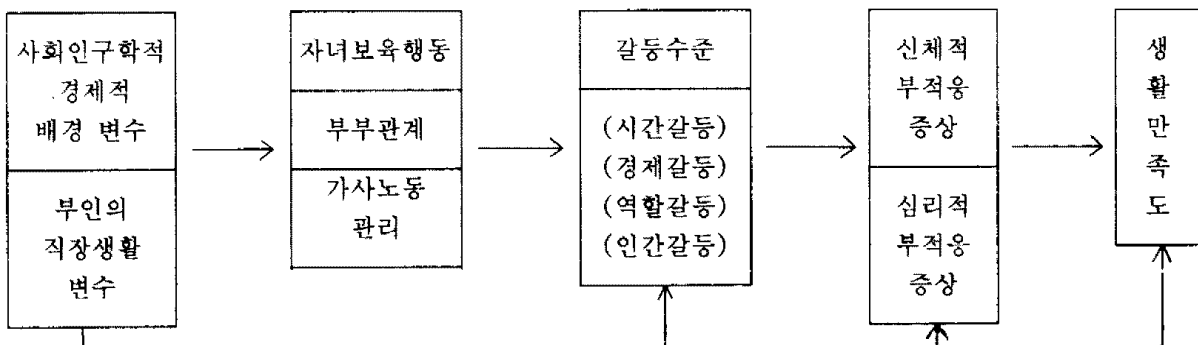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문제의 인과 모형.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경기, 청주, 대구지역 맞벌이 가정의 주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취업으로 인해 부인이 인지하는 갈등이나 부적응 증상의 요인이 어느 정도 공통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몇가지 제한점을 두었다. 첫째, 부인의 연령이 만 45세 이하이며 최소한 한 명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둘째, 남편이 생존해 있으며 무직이 아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자영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 대상자의 직업분포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상의 제한점 안에서 직업을 고려하여 임의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1990년 9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응답자를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포하고 나서 응답하게 한 후에 회수하는 방법과 면접자가 질문의 내용을 읽어 주고 나서 응답자가 답한 내용을 듣고 적절한 곳에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이용하였다. 총 436명이 조사되었으나 이 중에서 무응답이 많거나(10부) 자녀가 없거나(3부), 남편이 없는(2부) 경우에 해당하는 15부를 제외하고 421부가(회수가 96.6%)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지역별 사례수 및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가정·직업 특성은 표 1 과 같다.

### 2. 연구 도구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자가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한 후 본 연구문제에 적합한 문항을 영역별로 선정하여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자와 가정 관리 분야 전공 교수를 통하여 1990년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예비조사하여 질문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표 1. 일반적 가족 직업 특성

부인연령	% (N=402)	부인학력	% (N=395)
27~30세	21.6	중졸이하	15.9
31~35세	32.7	고졸이하	29.4
36~40세	25.6	대졸이하	42.0
41세이상	20.1	대졸초과	12.7
자녀수	% (N=421)	가족수	% (N=408)
1명	35.9	3명	23.0
2명	47.5	4명	40.5
3명이상	16.6	5명이상	36.5
거주지역	% (N=421)	가족유형	% (N=415)
서울·경기	47.7	부부가족	68.7
청주	27.8	확대가족	31.3
대구	24.5		
첫자녀연령	% (N=408)	결혼지속년수	% (N=410)
6세이하	43.1	1~5년	31.9
7~12세	30.4	6~10년	28.8
13~18세	14.0	11~15년	18.8
19세이상	12.5	16~20년	10.0
		21년이상	10.5
주택소유여부	% (N=418)	가계소득	% (N=393)
자기집소유	52.6	100만원 미만	19.1
기타	47.4	100~150만원 미만	27.4
주관적사회계층	% (N=393)	150~200만원 미만	24.7
상상	0.7	200~250만원 미만	13.0
상하	4.1	250~300만원 미만	7.4
중상	49.4	300만원 이상	8.4
중하	35.4	평균	185만원
하상	7.3		
하하	3.1		
부인직업	% (N=421)	부인1일평균근무시간	% (N=405)
단순노무직	12.1	8시간 미만	11.4
서비스직	10.2	8시간	36.3
판매직·소자영	16.2	8시간초과~10시간	39.0
사무직	50.6	10시간초과	13.3
경영관리·전문직	10.9		
부인직장근무경력	% (N=416)	부인초과근무유무	% (N=417)
5년 이하	27.9	무	73.1
5~10년 이하	39.4	유	26.9
10~15년 이하	20.9		
15년 초과	11.8		
부인 출·퇴근시간	% (N=371)	부인의 주 교통수단	% (N=407)
30분이하	37.0	버스	42.7
31~1시간이하	32.3	지하철	7.4

1~1시간30분이하	12.4
1시간30분초과	18.3

택시	4.7
승용차	17.7
통근차	6.4
도보	6.4
기타	14.7

부인이 직업을 갖게 된 동기 % (N=407)

경제적 필요	52.0
학교에서 배운 것 활용	29.9
가정살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5.7
자기 성취와 발전	50.8
사람들과 벗하기 위해	4.5
다른 사람이 권해서	6.9
기타	2.4

3. 분석방법

맞벌이 가정의 일반적 가정/직업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순 빈도와 %가 사용되었으며, 맞벌이 가정의 가족·직업 특성, 가사노동관리·아동보육 실태, 갈등, 부적응 증상, 생활만족도의 전체 모형은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4. 변수 정의와 측정방법

가사노동의 상품 및 서비스대체수준은 주부의 식생활과 외생활 영역의 가사노동을 대체해 주는 편의 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정도를 의미한다. 이 기영(1987)과 이승미(1989)의 연구를 토대로 의, 식생활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가사노동의 수행표준은 두경자(1990) 연구를 토대로 주부가 가사노동 수행시 수행기준에 대한 주관적인 철저함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사노동 시간은 주부의 평일과 휴일의 자녀 돌보기를 제외한 집안일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의미한다. 평일과 휴일의 가사노동 시간을 분으로 환산하여 합친 후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사노동 조력율은 이승미(1989)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가족원이나 가사조력원이 자녀 돌보기를 포함한 집안일을 도와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정기기 사용빈도는 주부가 가사노동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 주기 위하여 가정 기기를 이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직장 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어머니의 취업현상이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로서 어머니에 대한 자긍심, 자녀의 정서, 반항심, 성적, 건강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남편의 지원은 취업주부가 지각한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정서적 지원 및 가사협조의 수준을 의미하며, 남편의 지원정도, 대화정도, 남편의 이해도, 가사협조 수준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취업 여성의 가정 직장간 생활 갈등은 시간갈등, 경제갈등, 역할갈등과 인간갈등으로 구성되었다. 시간갈등은 주부가 가정내 역할, 직장내 역할, 가정/직장 역할을 수행할 때 느끼는 시간 부족 및 양립이 불가능한 시간 요구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의미한다.

역할갈등은 취업주부가 가정내 역할, 직장내 역할, 가정/직장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 직장인 역할의 역할 부담 및 스트레스를 말한다.

인간관계갈등은 취업주부가 가정/직장 역할을 양립함에 있어서 가정에서 경험하는 자녀, 남편, 시가와의 관계갈등 및 직장에서는 동료관계의 갈등을 말한다.

경제갈등은 주부의 소득이 직장에서 하는 일에 비해 충분하지 않거나 가사보조원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가계소득이 생활비 지출에 충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갈등을 의미한다.

각각의 갈등을 측정하는 문항은 3,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리커트형 척도로 갈등정도를 측정하며, 각 문항별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0.46부터 0.65까지 분포되었다.

부적응 증상은 신체적 부적응 증상과 심리적 부적응 증상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신체적 부적응 증상은 주부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불편하고 아픈 증상을 의미한다. Burke(198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신체적 피곤, 소화불량, 신체적 통증 등을 묻는 5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심리적 부적응 증상은 주부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느끼는 탈진, 불면증, 불안감, 초조감, 공격성, 증오심 등을 의미한다. Burke(198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9문항으로 작성되었는데 응답유형은 신체적 부적응 증상 척도와 동일하다.

각각은 위와 마찬가지로 5점 리커트형으로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0.77과 0.86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주부가 결혼, 주거, 자녀양육, 시간관리, 경제생활, 직장생활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연숙(1988)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위에서 설명한 6개 영역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응답유형은 5점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 를 사용한 결과 0.78로 나타났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생활 만족도와 관련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 인구학적·경제적 특성과 부인의 직업 관련 특성을 외생변수로, 자녀보육, 가사노동관리, 부부관계 관련 변수를 1차 내생변수로, 총합적 갈등 수준을 2차 내생변수로,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3차 내생변수로, 생활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구성하여 가설적 연구 모

형을 경로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경로 분석에서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수, 첫자녀 연령, 결혼지속년수, 직장근무시간양, 초과근무시간양, 주관적 사회계층, 직장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가사노동 수행표준, 평균 가사노동시간, 가사조력율(가족원과 가사 조력인으로부터 받는 도움양), 가사노동의 상품 및 서비스의 대체 수준, 가정기기 사용율, 남편지원정도, 생활만족도 변수는 응답자의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가족유형과 주택의 소유 여부는 가변수로 전환하여 가족 유형의 경우는 핵가족인 경우 1점을 주고 확대 가족의 경우 0점을 주고, 주택 소유여부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1점,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0점을 주었다. 가계총소득은 주부, 남편, 기타소득을 따로 질문한 후 응답한 문항의 중앙값을 계산한 후 세 문항의 중앙값을 합산해서 사용하였다. 갈등변수는 시간, 역할, 인간관계, 경제 갈등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4유형의 갈등 점수를 합산하여 1개의 총합적 갈등변수를 산출하였다.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 증상 간에도 상관관계가 높아서( $r^2=.73$ ), 두 증상 점수의 값을 합산하여 1개의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 변수를 산출하였다.

경로 분석에 포함된 외생변수 및 모든 내생변수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산출해 본 결과 높은 상관 관계( $r^2=.70$  이상)를 보이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2 참고). 본 연구의 경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회귀변수는 표 3에 나타나 있으며, 이들을 인과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 이다.

생활 만족도는 신체/심리적 부적응 증상, 주관적 사회계층, 갈등수준, 남편 지원 정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4 변수는 생활 만족도의 총분산을 35% 설명해 주고 있다. 이중 신체/심리적 부적응 증상이 맞벌이 가정 주부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Beta=-.42.)로 신체/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많이 느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낮



표 2. 외생변수 및 내생변수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연령										
2. 교육수준	.57									
3. 가족수	.17	.11								
4. 가족유형	.10	-.04	.46							
5. 첫자녀연령	.51	.22	.36	.31						
6. 결혼지속년수	.29	-.05	.28	.28	.38					
7. 주택소유여부	.02	-.07	-.06	-.17	.38	-.01				
8. 사회계층	-.08	-.00	.14	-.10	-.06	-.06	.21			
9. 직장근무시간	.02	-.00	.03	.01	.04	.01	-.08	-.02		
10. 초과근무시간	.03	.03	.06	.13	.09	.12	-.04	-.04	.16	
11. 가계총소득	-.01	.04	-.04	-.11	-.10	-.09	.21	.28	-.09	-.08
12. 직장-자녀영향	.37	-.01	.17	.19	.41	.49	.05	-.01	-.05	.07
13. 수행표준	.17	.00	.07	.07	.04	.08	.03	.10	.04	.18
14. 상품대체수준	-.00	.12	.01	.05	-.03	-.06	.00	.08	-.09	.00
15. 가사노동시간	-.04	-.05	-.04	.01	.12	.18	-.04	-.06	.20	.16
16. 가사조력율	-.05	.05	-.14	-.22	-.16	-.15	.16	.27	.01	-.07
17. 기구사용율	-.00	.00	-.01	-.02	.06	.08	.11	.04	-.08	.14
18. 남편지원정도	-.01	.08	-.03	-.02	.00	-.07	-.07	.16	.02	.05
19. 갈등수준	.16	.12	-.07	.03	.09	.05	-.05	-.18	.30	.24
20. 신체/심리증상	.16	.06	-.05	.02	-.04	.03	-.06	-.06	.18	-.00
21. 생활만족도	-.06	.02	.01	.01	-.02	-.05	.14	.35	-.18	-.03
평균	39.7	19.3	6.7	+	14.0	14.1	+	3.6	9.0	43.5
									1)	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연령										
2. 교육수준										
3. 가족수										
4. 가족유형										
5. 첫자녀연령										
6. 결혼지속년수										
7. 주택소유여부										
8. 사회계층										
9. 직장근무시간										
10. 초과근무시간										
11. 가계총소득										
12. 직장-자녀영향	-.08									
13. 수행표준	.09	.10								
14. 상품대체수준	.18	-.03	-.07							
15. 가사노동시간	-.14	.10	.20	.14						
16. 기구조력율	.32	-.06	.07	.14	-.15					
17. 기구사용율	.08	-.11	-.11	.09	-.01	-.04				
18. 남편지원정도	.01	-.10	.16	.05	-.05	.23	.10			
19. 갈등수준	-.16	-.10	.16	.03	.08	-.10	.11	-.04		
20. 신체/심리증상	-.11	.06	-.06	.08	-.05	.01	-.21	.47		
21. 생활만족도	.19	-.09	.15	.02	-.14	.27	-.07	.29	-.38	-.42
평균	184만	31.8	14.1	18.2	5.0	9.7	15.0	9.0	29.7	2.3
										3)

\*p<.05 \*\*p<.01 \*\*\*p<.001 + : 가변수화한 변수임.

1) 2) 3) : 단위를 시간으로 환산하였음

표 3. 내생변수 및 생활 만족도 변수의 회귀계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Beta)	B	R <sup>2</sup>
생활만족도	신체/심리증상	-.42***	-.33	.35
	사회계층	.35***	.26	
	갈등수준	-.19***	-.12	
	남편지원	.18***	.04	
신체/심리증상	갈등수준	.48***	.39	.28
	남편지원	-.21***	-.06	
갈등수준	직장근무시간	.31***	.00	.19
	초과근무시간	.21***	.00	
	주부의 연령	.14**	.01	
	가사노동 수행표준	-.16**	-.03	
직장-자녀 긍정영향	결혼지속년수	.50***	.68	.34
	첫자녀 연령	.25***	.27	
	주부의 연령	.14***	.01	
	주부 교육수준	-.22***	-.21	
가사노동 수행표준	가족수	.11*	.04	.01
가사노동시간	직장근무시간	.15**	.22	.04
	가계총소득	-.11**		
가사조력율	가계총소득	.15**	.00	.02
기구사용율	초과근무시간	.21***	.00	.05
남편지원	사회계층	.21***	.74	.04

p<.05 \*\*p<.01 \*\*\*p<.001

아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는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회계층(Beta=.35)으로서, 자신 가족의 사회계층을 상층으로 인식할수록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유형의 갈등을 통합시킨 갈등수준은 생활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Beta=-.19)을 미치고 있으며, 남편의 지원 정도(Beta=.18)는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 역할, 인간관계, 및 경제갈등 등이 맞벌이 가정 주부의 여러가지 신체적, 심리적인 부적응 증상을 초래하여 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본 연구의 분야별 결과를 재확인 해 주는 것이며, 앞서 제시 하였던 여러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소득, 직업, 학력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지한 주관적 사회계층과

인적자원의 한 형태인 남편의 지원 정도는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증대 시켜주는 원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체계적 맥락에서 볼 때 여러 갈등이나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은 체계의 행동을 유발 시키는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요소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생활의 복지 수준을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반면에 사회적 계층을 결정해 주는 가족의 소득, 직업지위, 교육수준과 배우자의 여러 지원은 요구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하여 생활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의 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요구요소인 제 갈등이나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 증상의 발생요인을 제한시키거나, 발생을 유발시키는 환경을 변경시키거나, 발생 했을 경우 적극적인 대처전략과 방안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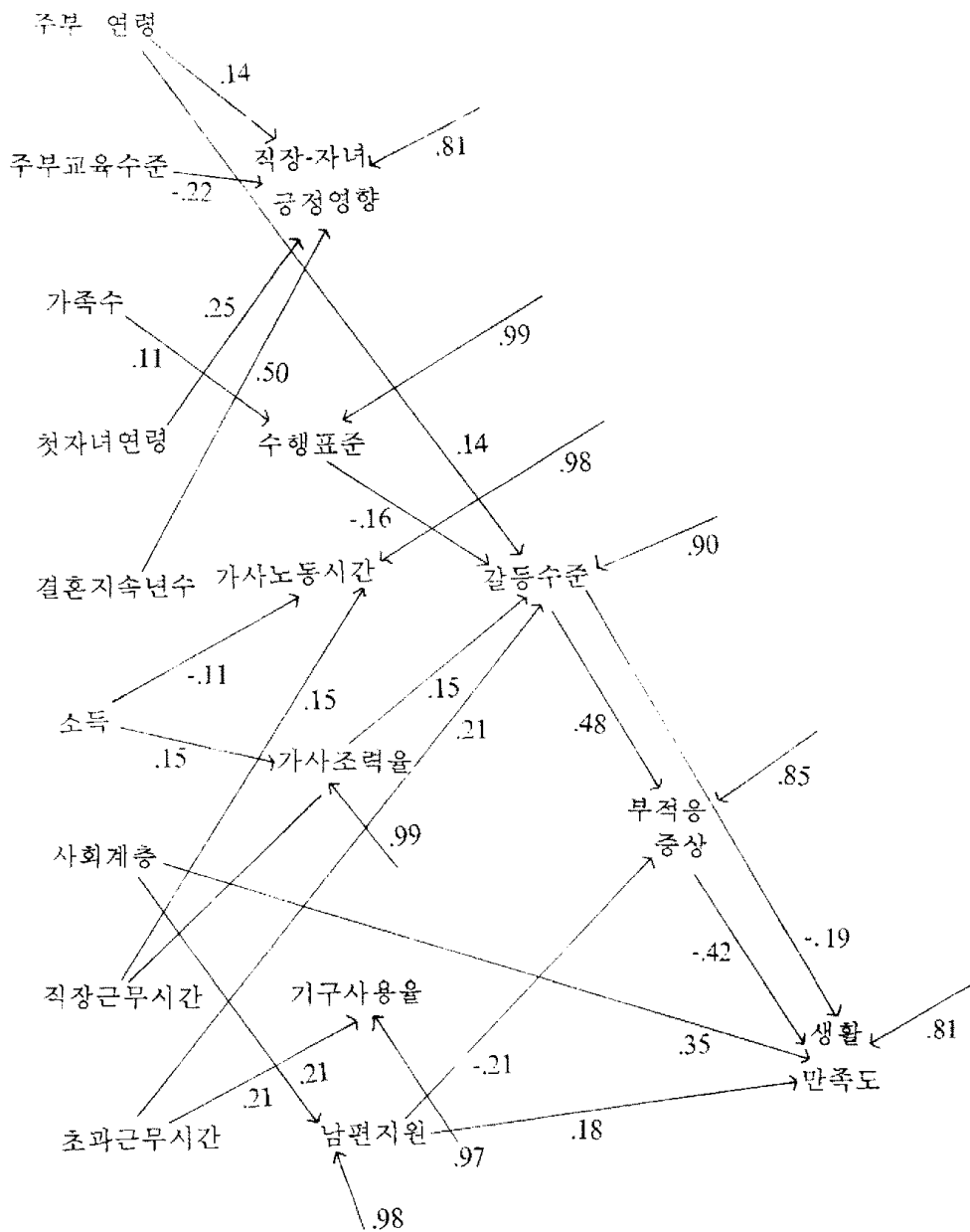


그림 2. 생활만족의 경로모형.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소득과 같은 물적 자원의 확보, 교육수준 혹은 직업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에의 투자, 가족원이나 배우자의 지원 획득과 같은 인적자원의 재조정 등과 같은 가족 자원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은 갈등 수준(Beta=.48)과 남편의 지원 정도(Beta=-.21)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는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의 전체 분산을 28% 설명해 주고 있다. 갈등 수준은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편의 지원 정도는 부적응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갈등이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초래하고(Burke, 1989), 배우자의 지원은 이러한 증상을 감소시켜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Greenhaus & Beutell, 1985)와 일치하고 있다.

직장 근무시간양(Beta=.31), 초과 근무시간양

(Beta=.21), 주부의 연령(Beta=.14)은 정적인 영향을, 가사 노동 수행 표준(Beta=-.16)은 부적인 영향을 갈등 수준에 미치고 있다. 이 네 변수는 갈등 수준의 총 분산을 19% 설명해주고 있다. 직장 근무 시간과 직장의 초과 근무 시간이 길고, 연령이 많고 가사 노동의 수행 표준이 낮은 취업 주부일수록 시간, 역할, 인간관계, 경제 갈등을 느끼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이 생활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갈등 수준의 감소를 위하여 직장 근무 시간의 조정이나 적절한 수준의 가사 노동 수행 표준 등의 설정이 요구 된다고 볼 수 있다.

주부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식에 정적인 관계를 맺는 변수는 결혼 지속 년수(Beta=.50), 첫 자녀 연령(Beta=.25), 주부의 연령(Beta=.14)으로 나타났다으며, 부적인 관계를 맺는 변수는 주부의 교육수준(Beta=-.22)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수행 표준은 가족수(Beta=.11)가 많을수록 높게 설정하고 있었으며, 직장 근무 시간이 길수록(Beta=.15) 가사노동 시간은 길어졌고, 가계 총소득(Beta=-.11)이 많을수록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짧아졌다. 가계 총소득(Beta=.15)은 또한 가족원이나 가사 조력인으로 부터 받는 도움의 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구 사용 정도는 초과 근무 시간이 긴 주부일수록 사용빈도가 높았고(Beta=.21), 주관적으로 인지한 사회 계층이 높은 주부일수록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지원(Beta=.21)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수인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과 1차 내생 변수들간의 관계는 분야별 연구 결과에 제시되어 있음으로 본 절에서는 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생략하겠다<sup>1)</sup>.

다음 생활 만족도와 관련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과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총인과효과를 살펴 보았다. 표 4에 의하면 주부의 연령, 직장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시간, 갈등 수준,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은 취업 주부의 생활 만족도에 부적인 인과효과를 미치며, 주관적 사회 계층, 가족수, 가사 노동 수행 표준, 남편 지원 정도는 정적인 인과효과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가 인식한 주관적 사회계층은 .352의 직접효과와 남편 지원 정도를 경유한 간접효과 .038과, 남편 지원 정도, 갈등 수준,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경유한 간접효과 .009를 더한 총 .399의 인과효과를 생활 만족도에 미쳤다. 가족수는 가사노동 수행 표준, 갈등 수준,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경유한 간접 효과 .004만을 생활만족도에 미쳤다. 주부의 연령은 갈등 수준을 경유한 간접 효과 -.027만을, 직장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은 갈등 수준과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경유한 간접 효과만을 각각 -.065, -.042를 생활 만족도에 미쳤다. 가사 노동 수행 표준과 남편 지원정도는 갈등 수준과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경유한 간접 효과 .032와 .042를 각각 생활 만족도에 미쳤다. 남편 지원 정도는 이와 같은 간접효과 .042와 직접효과 .177을 합하여 총 .219의 인과효과를 미쳤다. 갈등 수준은 직접 효과 -.186와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경유한 -.202의 간접 효과를 더한 -.388의 총인과 효과를 생활 만족도에 미쳤다.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은 생활 만족도에 -.418의 직접 효과만을 미쳤다.

표 4. 생활 만족도 모형에 있어서 관련 변수의 인과효과

독립변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인과 효과
사회계층	.352	.047	.399
가족수	-	.004	.004
주부의연령	-	-.027	-.027
직장근무시간	-	-.065	-.065
초과근무시간	-	-.042	-.042
가사노동수행표준	-	.032	.032
남편지원	.177	.042	.219
갈등수준	-.186	-.202	-.388
신체적/심리적부적응	-.418	-	-.418

<sup>1)</sup>이연숙외 3인 (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 실태와 문제」 제14차 한국가정관리학회총회 발표논문. 참고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생활 만족도와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한 결과 신체/심리적 부적응 증상, 주관적 사회계층, 갈등수준, 남편의 지원 정도는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사회학적 변수인 가족수, 주부의 연령, 직장생활 변수인 직장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은 가사노동 수행 표준, 혹은 갈등수준, 혹은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등을 경유 하여 생활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1차 내생변수인 가사노동 수행표준과 남편지원 정도는 갈등수준과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경유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생활 만족도에 주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로 볼 때 생활만족도 모형에서 내생변수인 가사노동 수행표준, 남편지원 정도는 취업주부의 생활 만족도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매개변수라고 할 수 있고, 갈등이나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증상은 생활만족도를 예측해주는 매개변수인 동시에 직접적인 설명변수라고 할 수 있다.

### 2. 제언

개인의 인구배경변수 및 가족 생활에 관련된 변수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취업 여성의 적응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고 그의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구조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즉, 취업여성의 부부관계를 설명해 주는 주요 요인은 취업여성의 직업지위와 그가 지각한 사회계층이다. 교육수준, 소득 등의 변수가 직업지위와 관련되어 주거와 가계재정상태를 이루는데 이것이 더 확대된 개념으로는 사회계층변인을 형성해 사회계층 내에서 남편과의 대화, 역할관계, 의사결정 등의 부부 간의 적응이 생활만족도 개념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그 어느 변수보다도 직업지위가 통합된 사회계층변수가 취업여성의 생활만족을 설명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삶의 질을 이루는 것이 개인의 특성이나 노력 차원의 것만이

아니라, 사회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취업여성이 가족 내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직장근무환경, 주거환경 및 자녀 보육대행 시설의 질과 같은 사회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보다 나은 직장, 주거, 자녀보육시설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장근무 중에도 자녀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걱정해야 하는 대부분의 취업여성의 복리차원에서도 질 높은 유아보육시설의 확대, 보급이 시급히 요청된다.

본 연구결과 중에서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취업여성의 생활이 가계재정, 자원관리, 주거환경 관리 등 물리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준 가운데 취업여성의 생활적응과 만족은, 그 어떤 경제적이거나 물리적 변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이해와 지원이라는 인간관계의 심리적 지원변수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남편의 심리적 지원이 그 어느 물리적, 경제적 변수보다도 취업여성의 갈등 해결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이 심리적 위안과 이해에 기초한 만족감에서 건강하게 구축될 수 있음을 밝혀준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가정되어온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새삼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TV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취업여성과 그 가족의 생활적응을 높혀 주기 위한 가족관계 지원교육을 실시할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성역할 체계의 유연성, 가족 성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입장이해 등의 사회교육이, 작게는 취업여성의 개인복지에, 크게는 가족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구혜령(1990).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 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순옥(1972).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도미향·최외선(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부부간 의사소통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69-85.

- 4) 두경자(1990). 가정관리 체계모형의 실증적 검증 : 서울시내 주부의 가사 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박숙자(1990). 취업모를 위한 탁아 제도 연구. 한국가족론. 도서출판 까치, 352-383.
- 6) 서동인(1985).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송말희·이정우(1986).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4(1), 33-47.
- 8) 위미혜(1988). 도시빈민층 기혼여성의 탁아요구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이성해(1980). 기혼여성의 취업과 부부갈등 : 도시가족변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9, 413-439.
- 11)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 전문직, 비전문직 주부와 비취업 주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2) 이영·문수재·지혜련(1986). 한국 취업모의 자녀 양육 현황과 문제점. *여성연구* 4(4), 32-67.
- 13) 임정빈·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4.
- 14) 이정련(1982).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이정련(1983). 남편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1(3), 131-138.
- 16) 이형실, 옥선화(1985).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31-44.
- 17) 정민자·위미혜(1990). 생산직 취업모의 탁아서비스의 요구 및 그들을 위한 탁아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25-140.
- 18)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1).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91-102.
- 19)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 20) 한국여성개발원(1987). 아동보육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205.
- 21) Adel-Halim, A.A.(1982). Social support and managerial effective responses to job stress.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3, 281-295.
- 22) Burke, R.J.(1989).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work-family conflict. In E. B. Goldsmith(Ed). *Work and family-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 287-302.
- 23) Chung, Y.L.(이연숙)(1988). Time management strategy, job satisfaction, research produ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facul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Ames, Iowa.
- 24) Cooke, R.A., & Rousseau, D.M.(1984). Stress and strain from family roles and work-role expect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 252-260.
- 25) Farmer, H.S.(1984). Development of home-career conflict related to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women. *Sex Role* 10, 663-675.
- 26) Felstehausen, G., Glosson, L.R., Couch, A.S.(1986). A study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and the home. Lubbock : Texas Tech University.
- 27) Greenhaus, J.H., & Beutell, N.J.(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76-88.
- 28) Herman, J.B., & Glystrom, K.K.(1977). Working men and women -Inter-and intra-role conflic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 319-333.
- 29) Keith, P.M. & Schafer, R.P.(1980). Role strain and depression in two-jobs families. *Family Relations* 29, 483-488.
- 30) Kelly, R.F., & Voydanoff, P.(1985). Work/family role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29, 473-480.
- 31) Kopelman, R.E., Greenhaus, J.H., & Connolly, T.F.(1983). A model of work, family, and interrole conflict : A construct validation stud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 198-215.
- 32) Pleck, J.H., Staines, G.L., & Lang, L.(1980). Conflicts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Monthly Labor Review* 103, 29-31.
- 33) Sanik, M.M.(1981). Division of household work : Decade comparison 1967-1977.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175-180.

- 34) Schultz, J.B., & Henderson, C.G.(1985). Family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 Implications for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2, 33-47.
- 35) Shultz, J.B., Chung, Y.L. & Henderson, C.G.(1989). Work/family concerns of university faculty. In E. B. Goldsmith : *Work and family-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 249-264.
- 36) Shran, V.R. & Hafstrom, J.L.(1986). Family resources related to wife's time input to house work.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10(3), 235-246.
- 37) Skinner, D.A.(1980). Dual-career families stress and coping : A literature review. *Family Realties* 29, 473-480.
- 38) Stafford, K.(1983). The effects of wife's employment time on her household work tim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3), 257-266.
- 39) Voydanoff, P.(1989). Work and family : A review and expanded conceptualization. In E. B. Goldsmith. *Work and famil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 : 1-22.
- 40) Voydanoff, P., & Kelly, R.F.(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6, 881-892.

